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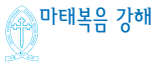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 14:34-36)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 되었고, 그 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무궁합니다.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게네사렛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 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도록 간구했고,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에는 병을 고치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일이나 그 어떤 기적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적은 그 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실패와 좌절에서 영원한 소망과 승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더욱 풍성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선물인 구원 얻음에 여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을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실패자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힌 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분께서 오신 목적,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궁극적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록 육신의 질고가 있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신적인 능력에 시선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힘을 쓰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곧 복음을 전파하여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Who is Jesus Christ?

(Matt. 14:34-36)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Christ is a holy man, the Son of God. He is also the creator, God. All creation was created for Jesus Christ, which exists for him.

Jesus Christ is eternally full of ability, wisdom, nobility, and glory. He is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Prince of Peace.

Jesus came to the earth to be born as a man. The eternal God came to the human world without time and space restriction.

In the text there appeared people who heard the news of Jesus. They came to Gennesaret and brought their sick to Jesus. They begged him to let the sick just touch the edge of his cloak with their hands, and anyone who had touched with their belief was healed.

Like this, in the Gospels there also appeared these several situations of which He healed the sick and quieted the stormy sea. If so, did Jesus come to the world to show his miracles? What purpose made Him come to the world?

Jesus came to the earth for only one purpose of God. It means that he came as a Lamb of God substituting for human sins in order to die on the cross. We have no doubt of those who earnestly pray with their faith are healed by Him. But his ultimate purpose to come to the world is not to heal the sick and to do miracles. His greatest miracle is that he died on the cross, atoned for human sin with his death, and resurrected again. And now, whoever believes Jesus Christ is saved, and moved from the death to eternal life, from failure and frustration to eternal hope and victory.

Therefore, if Jesus heals our illness, we have to give Him thanks. Even though He does not heal our illness, we must thank Him for giving salvation of which we receive our ultimate gift.

If He came to the earth for health and longevity, He might have left as a failure in mankind history. Can you say that Jesus was a failure, who lived his life time in poverty, died miserably on the cross with both hands and feet pierced with large na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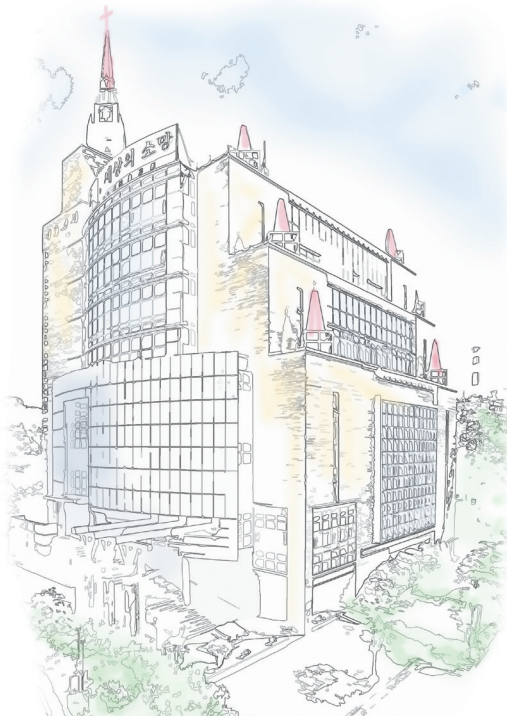
Nevertheless, nobody can say that Jesus was a failure. He accomplished his ultimate purpose of dying on the cross and substituting for human sins.

Though our life we suffer from body sicknesses, and we cannot achieve what we want, we need to believe Him and we are saved. And now in that we live our life for God's glory, we never say that we are failure in life.

My beloved Christians,

We can see through the book of the Gospels the astonishing divine power of Jesus. Though we are captivated by our eyes to such a divine power, we must never forget the ultimate purpose of his coming into the world.

We spread the ultimate purpose of Jesus Christ who came to the earth, in the other words, the Gospel by trying to do our best for the Gospel mission. By letting those go to hell lead to the kingdom of heaven,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used by a wonderful miss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7월 16일(수) / 수여식: 8월 3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4년 하반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

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7월 16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진행중

영어예배부 : 7.18(금)~19(토)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5(금)~27(주일)	서울교회	예수님의 사랑, 온세상의 광명!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사랑 나눔 미션을 수행하라	양세라 목사
유년부			나는 믿음의 사람,인내의 사람!	김안성 목사
초등부	7/30(수)~31(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최민혁 전도사
중등부	7/24(목)~26(토)	아가페타운	나는 순금이 좋다	박노철 목사 / 노정호 목사
고등부	7/31(목)~8/2(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노철 목사 / 천세종 목사
청년부	8/12(화)~8/16(토)	경기도 광주	새로운 도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박노철 목사 / 서준권 목사
청년2부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사랑부	7/12(토)~13(주일)	서울교회 / 아가페타운	주안에서 우리는 하나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7/24(목)~26(토)	아가페타운	예수의 사랑을 주는 사람들	임규현 목사
영어예배부	7/18(금)~19(토)	아가페타운	INTIMACY WITH CHRIST	김다니엘 목사

## 루디아전도회 독거노인 반찬봉사

7월 15일(화) 10시30분 / 8층 만나홀

루디아전도회(회장 : 김현경 집사)는 독거노인 반찬봉사를 매주 셋째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른 전환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독거노인 비율이 1994년 13.6%에서 2013년 현재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25만 2천 명으로 이는 전체 노인의 20.4%에 달하는 숫자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들의 빈곤화

또한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작은 봉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루디아전도회는 수년째 독거노인 반찬봉사를 하고 있다.

이번 7월의 봉사는 15일(화) 10시 30분, 8층 만나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른 더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 루디아전도회는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36)

**(문 136) 솔로몬의 개인 생활을 볼 때 그의 기록을 성경에 넣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를 인간 중 가장 지혜 있는 자로 부를 수 있습니까?**

(답) 솔로몬은 높은 이상과 고상한 원리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3:3에 의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향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케 해 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왕상3:9)

하나님은 그의 구하는 바를 마음에 기뻐하시고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너와 같은 자가 네 앞에도 네 뒤에도 없다고 하시었습니다.(왕상3:10, 12)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습니다.(왕상4:29) 그리고 31절에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당시 유명한 지혜자들보다 나으므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는 그로 하여금 재판을 바르게 하여 통치를 잘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왕상3:16-28) 그리고 건축하는 이로, 공예배의 지도자로, 성을 지키는 이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 이로, 동식물 양육자로(왕상4:33), 시와 문학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잠언은 경건과 열매있는 삶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교훈을 내포한 책입니다. 성적범죄 폭력, 공범 등에 대한 경고와 교사와 지도자로서 솔로몬의 높은 지혜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등 세 권이 영감 된 책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왕상11장에서 여러 여인을 사랑했고 특히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한 그 백성의 여인을 사랑했으니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었으며 그 여인들이 시돈 사람의 여신과 암몬의 물욕과 밀골을 따르고 모압의 그모스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고 했습니다.(1-7)

지혜의 은사는 도덕적 신실성의 은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경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엔 부와 권력으로 얻은 모든 쾌락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어 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12:13)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책은 그가 그 책을 쓸 때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요 그의 개인 삶은 특별히 어려웠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 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다음 주 계속)



제 6회 장로교의 날

- ① 행사 전경
- ② 봉헌기도를 담당 한 오정수 장로
- ③ 분열 된 교단의 화해, 연합과 일치의 다짐과 기도를 인도 한 이종윤 원로목사

사진 : 오주명 성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내 증인이 되라!



김광태 집사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부단장)

2014년 여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단 합류를 기도로 결정하자니 아내 최종희 권사의 말이 나오면서부터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부담감이 다가왔습니다. '선교' 그 간단한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단원들과 매주 토요일 모임을 갖고 방글라데시 언어도 배우고, 경험담을 듣고, 장티푸스 주사를 맞는 등,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단원 모두가 하나같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욱 뜨겁고 정열적으로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담감을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누구든지 선교를 해야 하며 예수님의 대 유언인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따라야 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루어질 어린이 사역의 경우 교회학교 초등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어린이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속에서 그들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선교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단기선교단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단기선교 참가자〉

- 지도 : 황 광 목사 · 단장 : 김형상 집사 · 부단장 : 김광태 집사
- 고문 : 오정수 장로 하인선 장로 · 총무 : 박종권 집사
- 서기 : 이영숙 권사 · 회계 : 송행희 집사
- 지원팀 : 이영희 권사 최종희 권사 최갑숙 권사
- 이미용팀 : 김필임 권사 김영옥 권사 문옥일 집사
- 어린이팀 : 최근우 문창희 박은영 홍하림 황신혜 박민수
- 의료팀 : 김봉배 집사 정현구 집사 백승경 집사 박연경 정일윤 조수호 총 26명

- 기도제목 -

1. 방글라데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온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 현지 선교사인 조남혜 선교사님,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님,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아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단기선교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3. 단기선교사들이 영혼구원의 열정을 품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4.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亨통하게 진행되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5. 풍토병 등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기후와 숙식에 잘 적응하여 강건하며, 항공기와 현지 교통에 차질이 없게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6. 모든 사역지에서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과 물자를 공급하옵소서.
7. 단원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혼연일체의 협력을 하게 하시며, 미움과 다툼 없게 하옵소서.
8. 만나는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9. 사단의 유혹과 함정을 잘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 선교준비와 교육과정이 마음을 쓰는 기도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져, 잘 훈련되고 철저히 구비된 능력 있는 선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시민양성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오영숙 권사 (12교구)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유관 순여사 안중근의사 이준 열사 등과 그 외에도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켰던 일은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처럼 아주 작은 일에서 부터 책임을 다하였기 때문에 후손들 가슴 깊이 애국자로서 기리 남아있다고 본다. 작은 일은 하찮게 보고 변칙적인 묘기나 행동만이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신뢰를 잃어가며 '잘되면 성공 안 되면 재수가 없다'는 생활습관이 가장 적은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생각이 사회와 국가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과 우리의 생활 안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책임을 다해 질서를 지킴으로 사회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국가가 발전하게 된다고 믿는다.

헌법을 떠나서 우리는 상식과 교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생활화 되어야 하는 일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나오는데 특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 즉 오른쪽으로 걷기, 자리 양보하기, 거리에

쓰레기 안 버리기, 거리에 침 뱉지 않기, 승강기 이용할 때 질서 지키기, 남에게 불편을 줬을 때는 용서를 빌기,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마워하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봉사정신으로 도와주기 등 아주 수 없이 많은 작은 일들이 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반성치 않으면 이로 인해 평안하고 명량한 공동사회를 이루기보다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온다고 본다.

사회공동체에서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은 다르나 맡은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정의와 충성으로, 학생들은 학업에, 교사는 교육에, 기업인들은 사업에, 공무원들은 맡은 바 일에 책임을 다하고 특히 고급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겸손하므로 청빈과 충절을 다했다면 모든 국민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한 기구와 조직을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전체적으로 국가는 발전하게 된다.

우리는 각자가 맡은 조그마한 일을 책임을 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한다는 것은 마치 한 건축물이 잘 세워졌다면 거기에는 네개의 주춧돌, 기둥, 벽, 벽돌 등이 완벽하게 맞추어졌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것 중 어느 것이 빠졌다면 그 건축물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국가관, 국가관이 뚜렷해야 할 성찰과 합리적인 판단과 결단을 하고 오만과 편견이 아닌 겸손하므로 봉사하는 자세로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쉽을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얼마나 좋은 모범을 보였는지 안타깝다.

우리 민족은 오천 년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얼마만큼 단결했었는가! 우리의 민족과 혼이 살아있음을 알고 대한민국은 영원함을 인식하고 투철한 국가관을 쌓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짐으로서 건축물의 하나의 벽돌 역할을 함으로써 나라를 지키며, 조그마한 일이라도 어느 곳에서든 책임을 다함으로 모범을 보이며 가장 적은 일이라도 용기와 힘을 가짐으로 애국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우리 민족은 살아있다, 대한민국 국가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다.'라는 철두철미한 애국심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한치라도 이 땅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으로 살아야 하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해 충성을 하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다.

중등부 수련회 초대

나는 순금이 좋다



박형수 집사 (중등부 부장)

살롬~  
주님의 사랑으로 7월 24일(목)~26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되는 여름수련회에 중학생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다음세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영성훈련으로서 "나는 순금이 좋다"라는 주제로 준비중입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특강과 중등부 노정호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욘23:10)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고난의 의미와 인내의 믿음, 그리고 그 결실에 대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

다.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찬양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물놀이와 유익한 공동체 훈련을 통해 믿음의 친구들과 즐거운 신앙생활의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특별한 여름수련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시온찬양대(대장:이영기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최유현 집사의 지휘로 '시 150편(우효원 곡)', '신자되기 원합니다(조혜영 편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박지훈 곡)'를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진형 성도, 피아니스트 박승기 성도,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고 신모란 집사, 박수련 성도, 이명호 성도가 곡중 솔로를 담당한다.

다락방 리더훈련 중강 다락방 방학

상반기 다락방 리더훈련이 7월 16일(수)에 종강한다. 이 날 모든 다락방 리더들이 참석하여 교구목사들로 부터 다락방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개강은 8월 27일(수)이다.

혹서기를 맞아 다락방 모임도 방학한다.

금요기도회 찬양

주님을 찬양함이...



우선경 성도 (금요찬양팀)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금요기도회 찬양 팀 새내기 우선경 성도입니다.

저는 금요기도회의 찬양 섬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세례를 받을 때 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제 삶에서 첫째로 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제 생활의 전부이고 집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 찬양은 저와 함께 교회학교를 섬기는 권사님의 권유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곡도 잘 모르고 여러모

로 부족하여 걱정하는 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짐만 있으면 다른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간증 해 주셨습니다. 금요찬양팀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느끼며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금요기도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팀에 서게 되니 믿음이 더해지고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가족처럼 따뜻하신 박영준 목사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금요기도회 찬양시간은 참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목사님은 찬양 연습시간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금요기도회는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서로 위하는 마음과 따뜻함이 있는 찬양팀의 일꾼으로 동역해 주시고 은혜로 가득한 금요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6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월례모임에 참여하고 18일(금) 통합축지도사연합회모임을 소집한다.
- 교역자 휴가: 장석남 목사(7.17-19) 대행 서명철 목사
- 주일식당봉사: 빌립선교회 리브기전도회(7.13) 안드레선교회 한나전도회(7.20)
- 금주의 식사 제공: 여영숙 권사 신정일 집사 가정(모친 최순애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 주에 있는 영어예배부 여름 수련회와 준비중에 있는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2. 루디아 전도회 독거노인 반찬 봉사과 70인 전도대의 전도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힘 있게 전파 되도록
3. 이종윤 원로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통해 한국장로교회의 대연합의 역사가 이뤄지도록

예배 및 집회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